

< 본 자료는 <https://blog.naver.com/femiart302>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23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시민참여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여성 독립운동가, 그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
역사가 된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당신을 만난다.

- 삼일운동 100주년이 지나서야 조명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함께 읽고 배워 만든 시민참여 낭독극
- 역사와 일상에서 발견한 여성 경험과 지혜를 담은 연극, 윤석남 작가의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위한 오마주
- 2023년 여름, 우리 안의 긍정적 여성의 모습을 함께 찾고, 일깨우며, 격려한 시민들의 시간을 농축한 무대
- 독립운동가의 후손부터 20대 취업준비생, 주부, 배우와 무용가, 여성단체 활동가 등 참여 시민의 다양성도 인상적

#낭독극 #여성문화예술기획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공모사업

#시민참여 #이혜경 #윤석남 #여성 독립운동가

2023년 9월 6일 (수) 오후 3시, 6시

9월 7일 (목) 오후 3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다목적홀

■ ■ 시민참여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2023년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

*일백 년 전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에 비치는 오늘 우리의 삶
치열했던, 그리고 다양했던 근대 여성 주체의 시대 대응과 항일*

시민참여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는 사) 여성문화예술기획(이사장 이혜경)이 2023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사업의 결과물이다. 9월 6일 오후 3시와 6시, 7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3회 공연된다. 2023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에 시민을 초대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부터 20대 취업준비생까지 각계 시민참여로 만든 낭독극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는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지난 5월 초 모집한 시민참여자 20여 명과 함께 만든 연극이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근대적 여성 주체로 각성하여 역사가 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다.

본 공연은 지난 5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 13회의 강의와 워크숍, 작가 방문 프로그램 등과 10회의 공연 연습으로 완성한 시민참여 낭독극이다. 한국 근대사의 맥락에서 바라본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에 관한 강의와 글쓰기 워크숍, 말하기와 연기하기 워크숍 등을 거쳐 시민 참여자가 직접 쓰고, 직접 연기한다. 낭독극에 출연하는 10여 명의 참여자는, 20대 취업준비생인 고유정, 30대 직장인 원지연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의 후손인 김선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소영과 박정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배우인 김화영과 이한희, 은화신, 역사 알기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50대 주부 정경훈,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김연정 등이다. 이 밖에도 본 프로그램에서 대본을 위한 글쓰기와 대본 읽기 및 토론으로 낭독극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다양한 이력의 시민이 참여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소수의 영웅 서사 아닌 근대기 여성의 삶 자체

여성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이지원 대림대 교수와 정영훈 전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의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한 강의가, 5월 25일과

6월 1일, 2회 있었다. 강의는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 2층에서 진행되었다. 이지원 대림대 교수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특별했던 소수 여성의 영웅 서사에 가두지 않기”를 제안하고, “당대 여성들이 맞닥뜨린 봉건적 질서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이중고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기 여성의 실천적 삶”으로 해석하기를 주문했다. 일제강점기 각계각층의 여성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조금은 나은 삶을 위해 지배 질서와 충돌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강의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활동이 소개되자 기록되지 않았기에 기억될 수 없었던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존재 자체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이들의 존재를 일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다시 놀라워했다. 이것이 2023년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시민이 쓰고, 낭독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10인의 이야기

강의에 이어 진행된 글쓰기 워크숍은 낭독극의 대본을 시민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었다. 정영훈 전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정영훈 관장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일화를 소개했다. 간도를 넘어 만주와 대륙을 관통하고, 일본을 넘어 태평양을 넘나들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광활한 활동무대, 이들의 출신 계급과 교육, 항일운동의 참여 방식과 종교, 직업, 정치적 신념의 다양함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매력을 느낀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낭독극 대본 쓰기를 시도했고, 작성한 초고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을 했다. 이렇게 10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준비되었다.

참여자들은 강의와 글쓰기 과정을 통해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났고, ‘내가 그였다면...’의 상상을 추가해 낭독극을 위한 대본을 구성했다. 의병대의 주역이고자 했던 윤희순과 남자현, 일제와의 최전선에서 백마 타고 싸우던 김명시 장군, 명문가 며느리로 소명 삼았던 유교적 봉제사점빈객으로 서간도 항일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허은, 나라 잃은 정부의 안살림을 맡아 임시정부의 맥을 이어가고 기록했던 정정화, 삼일운동으로 투옥된 8번 방에서도 기생의 노래를 배우고 노가바(?)했던 명연설가 권애라, 전투기 폭격으로 일제를 타격하겠다고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야 말았던 권기옥, 사상기생이라 불리며 여성의 자립과 성 해방을 주창했던 정철성, 지식인으로 여성의 해방된 삶을 글로 쓰고, 스스로 실천하며 산화했던 나혜석,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하며, 을밀대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던 노동자 강주룡, 단재 신채호의

아내로 일제의 탄압을 버티며 독립운동의 산과 되기를 자처했던 박자혜 등의 이야기가 낭독극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알아보기 힘든 흑백사진처럼 흐릿하던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이야기가 낭독극으로 살아난다. 여기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2023년 다시 불러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성별혐오 너머 여성주의 운동의 동력 찾기 **낮선 많은 것에 포용적이던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양태는 몇 개의 범주나 유형으로 나눌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수준의 대응으로 시대적 소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또 이들이 활동한 공간의 광활함과 개방성도 놀랍다. 너르게 열린 공간에서 낮선 많은 것에 오늘의 우리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응했다. 극심해진 성별 혐오로 운신의 폭과 동력을 잃은 듯한 오늘의 여성주의 운동의 대안을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포용성에서 기대하는 뜻이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자 나선 1세기 전 이 땅의 여자들은 동북아 한쪽 끝 반도에 갇히거나 막혀버린 존재가 아니었다. 동서로, 남북으로 세상을 열고 나섰으며, 먼 그곳에서 이 땅의 운명과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했었다. 이것이 오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시 부르는 이유이다.

낭독극의 연출을 맡은 이해경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은, “한국 여성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윤석남 작가의 전시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에서 여성주의 문화예술운동의 재기해야겠다는 전언과 함께 힘을 보았다”고 밝힌다. 그런 점에서 시민참여 낭독극은 윤석남 작가의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를 위한 오마주라고 말한다.



기획_윤지현, 이해경 총연출_이해경 음악연출_최수린 춤 연출_김연정
조연출_유다겸 조명_이상근 음악_최수린 무대미술_이충열/윤석남 작가 특별지원
글지도_정영훈 연기지도_김화영, 이한희 춤지도_김연정 공연기록 및 촬영_이은솔
공연단장_민경숙, 이구경 대본_참가자 공동집필 출연진_고유정, 김선현, 김연정,
김화영, 박정순, 원지연, 은화신, 이구경, 이소영, 이한희, 정경훈, 최영애

■ ■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사업의 개요

시민참여 낭독극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는 (사)여성문화예술기획(이사장 이해경)이 2023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다.

■ ■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사업의 구성

이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시민참여자를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9월 6일과 7일 3회 공연과 9월 21일의 총평회까지 약 6개월의 긴 여정으로 펼쳐진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에 관한 2회차의 역사학과 여성학 강의, 낭독극 대본 작성을 위한 3회차의 글쓰기 워크숍,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의 윤석남 작가 작업실 방문과 대화,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촬영, 취재했던 김진열 다큐멘터리 감독의 영상과 경험 공유 및 대화, 6회차의 낭독극 말하기와 연기하기 워크숍, 8회차 공연연습과 3회차의 극장 공연, 공연영상 시사회 겸 참여자 총평회 등 총 25회차로 구성된다.

■ ■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사업의 기획의도

우리의 일상을 둘러보면 용감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 지식이 많은 여성, 따뜻한 여성 등 배울 만하고, 존경할만한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은 역사 속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되기 어렵듯 여성 영웅의 서사는 귀하다.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을 넘어서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면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삶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들 ‘역사가 된 여성들’에 대해 배우고, 우리 안에서 긍정적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의 전체 과정을 거치며 참여자의 여성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젠더 관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어 여성영웅 서사와 여성의 긍정적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공유하고자 했다.

■ ■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사업의 과정과 기여

- 참여자와 함께 ‘여성과 역사’ 를 성찰하고, 독립여성운동가의 삶을 배운다.
- 함께 공부하기, 글쓰기, 말하기, 낭독하기, 연극 만들기 과정을 통해 참가자의 젠더 관점과 문화예술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 일상 경험에서 여성 영웅을 찾아내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낸 낭독극을 제작한다.
- 다양한 관객과 만나는 낭독극의 공연과 이어지는 토론으로 우리 일상 속 여성 영웅들을 일깨우고 재발견한다.
- 동시대 일상 속에서 여성의 긍정적 모습을 찾아 공유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확산에 기여한다.

■ ■ 관객 초대 전단

2023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
-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

여성독립운동가,
그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

2023. 9. 6.(수) 오후 3시, 6시
9. 7.(목)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

기획_윤지현, 이해경| 총연출_이혜경| 음악연출_최수린| 춤 연출_김연정
조연출_유다경| 조명_이상근| 음악_최수린| 무대미술_이충열/윤석남 작가 특별지원
글지도_정영훈| 연기지도_김화영, 이한희| 춤지도_김연정| 공연기록 및 촬영_이은솔
공연단장_민경숙, 이구경| 대본_참가자 공동집필| 출연진_고유정, 김선현, 김연정,
김화영, 박정순, 원지연, 은화신, 이구경, 이소영, 이한희, 정경훈, 최영애

공연문의_010-5620-1017, femiart302@gmail.com
예약신청_https://forms.gle/ASXY956qw3SaW6Aq9



제작/주최_(사)여성문화예술기획

본 전단은 윤석남 작가의 허락을 받아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의 전시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관람참가 신청링크: <https://forms.gle/ASXY956qw3SaW6Aq9>



■ ■ FAN (사)여성문화예술기획은

1992년 설립된 (사)여성문화예술기획은 여성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여성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전문문화예술단체입니다. 1990년대 본격 페미니즘 연극을 표방하고, 연극 <자기만의 방>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요네즈> 등으로 여성의 각성과 독립을 담론화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여성미술제를 개최했고, 여성사전시관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기행을 시도해왔으며, 2020년대 현재에도 여신생태문화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여성재단 등의 공모사업으로 젠더 관점의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성인지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1992. 2. 여성문화예술기획 창립
- 1996. 12. 11.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 등록

[연극]

- 1992~2004 연극 <자기만의 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요네즈> 등 10여 편 기획 및 공연

[미술]

- 1999~2014 제 1~3회 여성미술제 개최 및 ‘Song for Our Muses’ USA 등 국내 외 총 7회의 대규모 미술전 개최

[콘서트]

- 1997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오프닝 기획
- 2001~2006 여성수다콘서트 전국 순회 등 축제 연출 및 기획 50여 회

[영화]

- 1997~2010 서울여성영화제 주최

[문화예술교육]

- 2018 서울시성평등기금 “엄마는 큐레이터”주최 주관
- 2018년 인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엄마는 문화예술선생님” 주최 주관
- 2020-2022 서울시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젠더 관점의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진행
- 1994~ 생태마을 예술가 되기 20여 회 개최
- 1992~ 문화예술기행 40여 회 개최

[위탁사업]

- 2002 여성부 여성사전시관 연구 용역
- 2005~2011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위탁운영
- 2020~ 현재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위탁운영

[학술사업]

- 2018 GKL 사회공헌재단 “도-농 문화교류 심포지엄-농촌과 도시, 여성문화로 만나다” 농촌 여성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최 주관
- 2019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관리 매뉴얼 개발
- 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행정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 ■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프로그램



본 원단은 윤석남 작가의 허락을 받아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의 원시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가신청 문의_ 여성문화예술기획 010-5620-1017
 구글신청폼 <https://forms.gle/QUoLLD1AQay9vsTi6>
 여성문화예술기획 메일 femiart302@gmail.com

낭독극 만들기와 공연 2023. 5. 25 - 9. 21.

강의 2회
 0525(목) 근대 여성의 삶과 항일 권운중장신정기념관/오후2시~4시
 0601(목)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오늘 이지원 대림대 역사학과 교수
 정영준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전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낭독극 쓰기 워크숍 3회
 0615(목) - 희곡 쓰기 동대문구정호도서관/오후2시~5시
 0622(목) 정영준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전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0629(목)

문화예술 현장탐방과 토론
 0706(목) 김진영 영화 "잊혀진 전사들" 감상과 토론 동대문구정호도서관/오후2시~5시
 0713(목) 윤석남 전시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작가와의 만남과 토론(경기도 화성의 작가스튜디오)



낭독극 만들기 워크숍 6회
 0720(목) - 말하기와 호흡 마로니메디움/오후2시~5시 김화영 배우 지도
 0727(목)
 0810(목)
 0817(목) - 연기하기 이한희 배우 지도
 0824(목)
 0831(목)

연극연습 0821(월)-0831(목) 오후2시~5시

리허설과 소극장 공연 2회
 0901(금) 리허설 공연장 추후공지/오후3시~6시
 0902(토) 2회 공연

사회회 및 총평회
 0921(목) 장소 추후공지/오후2시~4시



**여성독립운동가 357인 그리고 숨은 여성들,
 그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

오늘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는 일상에서 용감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 지식이 많은 여성, 따뜻한 여성 등 존경할만한 여성을 자주 만난다. 그러나 역사는 여성의 삶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기에 기억되지 못한 여성을 찾아 배우고자 한다.
 삼일운동 100주년(2019)을 지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조명되었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이야기는 우리 안의 긍정적 여성을 돌아보게 한다. 함께 읽고 배운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에 우리의 이야기와 문화예술적 역할을 담아 낭독극을 만들고자 한다. 2023년 첫발을 떼며 여성의 역사와 우리를 긍정하는 힘을 많은 시민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배우고, 여성의 오늘을 성찰하게 할 낭독극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만들기께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낭독극의 배우로 공연만들기의 기회와 실재자로 나설 기회를 만하신다면 아래 참가신청 QR로 지금 바로 들어주세요.



참가신청 문의_ 여성문화예술기획 010-5620-1017
 구글신청폼 <https://forms.gle/QUoLLD1AQay9vsTi6>
 여성문화예술기획 메일 femiart302@gmail.com

후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 주관·주최 (사)여성문화예술기획